

# 마약 재범 악순환에도...손 놓은 재활 치료

### 광주 치료지원사업 병상 5개 지정이 전부...중독자 자발적 신청에만 의존 마약사범 급증 속 재범률 50%...단속도 좋지만 재범 방지대책 마련 시급

광주에서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범 예방을 위한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빚어지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한다.

23일 광주북부경찰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주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던 20대 B씨가 광주시 서구의 한 주택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적발돼 현장 신세를 졌다.

지난 2월에는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20대 C씨가 체포됐으며, C씨 또한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이 검거한 마약 사범 수는 2021년 153명, 2022년 239명, 2023년 740명 등이다.

문제는 재범률이 50%에 달한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광주 마약 사범 재범률은 52.9%에 달했고 지난 2022년에도 42.2%를 기록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치료보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독자의 자발적인 치료 신청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재활치료를 받는 인원도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지원사업'은 마약류 관련 법 등에 근거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의료기관을 정하고 입원치료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광주 지역에는 광주시립정신병원에 병상 5개만을 지정해 준 것이 전부이며, 올해 예산도 400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용자는 2018년 2명, 2019년 1명, 2023년 1명뿐이었던데, 올해 또한 1명이 이용 의사를 밝힌 것 외에 이용자가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활 치료를 받으려면 결국 중독자 본인이 직접 치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스스로 중독자라는 걸 알리기 꺼려하고 개인정보도 시에 전달해야 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수백명씩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데 비해 상담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퇴본부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마약 중독 관련 상담은 2021년 130여회, 2022년 180여회, 2023년 200여회 이뤄졌으며, 재활프로그램 이용자 수도 2021년 70여명, 2022년 80여명, 2023년 100여명 수준이었다.

마퇴본부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대부분 집거하는 바람에 사람들 만날 일도 없어 우울증을 겪는데다 인터넷에 퍼진 마약 정보를 자주 접하게 돼 마약 이용자가 늘었다"며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마약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취업 등 여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해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마약 사범을 단순히 체포 및 처벌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치료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최형영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마약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독성이 강한 만큼 재범 위험이 매우 높아 반드시 치료가 전제돼야 한다"며 "보호관찰소뿐 아니라 체계적인 중독재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마약사범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퇴본부 광주전남지부는 급증하는 마약 재활치료 수요를 감당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내로 '호남권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전문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도 올 상반기 광주지방교정청 산하에 마약사범 전담 재활 교정시설을 지정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교량 보수하다 추락 진도서 작업자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진도에서 교량보수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2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께 진도군 조도면 조도대교 상판에서 보수작업 중이던 A(31)씨가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조도대교 보수공사 현장에서 발판 설치 등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여러명이서 같이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안전모는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사는 진도군이 발주했다. 경찰은 안전지침이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과실여부가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법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24 상반기 남구 통일효도열차 운행  
평화 염원 광주 남구 통일효도열차  
남구 남구가 진행한 '2024 광주 남구 통일효도열차' 행사 참가자들이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구 통일효도열차는 평화교육의 일환으로 65세 이상의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남북경협지역 등 DMZ를 둘러보는 행사로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 수의계약 알선 수수료 받은 인터넷신문 기자 항소심도 실행

지자체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 실행을 선고받고 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형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800여만원도 추징했다.

인터넷신문 기자인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순천시에서 발주한 '휴먼지킴이' 납품 수의계약을 3개 업체에 7차례 알선해 수수료로 4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수의 계약을 줄테니 계약금이 입금 되면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수의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납품단가를 높게 제시하는 수법으로 타업체의 낙찰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내세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이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관급계약을 수수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동장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법무부, 가석방 불허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이 불허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심사위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2심에서 법정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 사건 인사이트

### 장난으로 인한 사고로 묻힐 뻔 했는데... 목포 지적장애학생 익사사건 진실 드러나 게임 패자 만들어 강제 바다 입수...살인 혐의 등 3명 기소

자칫 지인의 장난으로 인한 사고로 묻힐 뻔한 중증 지적장애 학생 익사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다.

지난 2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특수학교 학생 A(18)군은 목포 북항선착장에서 바다에 빠져 숨졌다.

현장에는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 B(20)씨, C(16)군, D(아·14)양이 함께 있었다.

B(20)씨는 목포해경 조사에서 "바다입수 내기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진 A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발적으로 밧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는 이들 외에 다른 목격자가 없었고 유일한 목격자인 C군과 D양의 진술이 일치했다.

결국 목포해경은 B씨만을 증거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범행장면을 찍은 CCTV장면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이들의 진술은 허위였다.

목포지청은 이 CCTV영상 화질을 개선하고 정밀분석했다. 또 A군이 이전에 동일하게 당한 또다른 사건 기록도 확인하고 현장에 있던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이 동일한 패턴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습관을 포착했다. 규칙적으로 가위,바위,보를 순

서대로 되풀이 하는 방식이다.

B씨 등은 이를 이용해 바다입수 내기 게임에서 A군을 패자로 만들었다.

검찰은 또 B씨와 C군이 선착장 부잔교 끝에서 도망하지 못하게 A군을 둘러싸고 입수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겁에 질린 A군을 바다에 빠뜨리기 위해 몸을 여러 차례 당기거나 밀쳤다. C양은 A군이 부잔교 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휴대전화로 범행 과정을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A군이 바다에 빠지면 숨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고 봤다. 범행 현장의 바다 수심이 4m에 달하고 2월의 밤바다는 수온이 매우 낮고 수면 아래 10cm 두 육안으로 분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와 C군을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C양을 살인 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의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